



봉 우 겔 럽

내가 잠을 못자는 이유

나는 본시 잠이 많지 않지만, 더욱 잠에 인색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고객은 음식 맛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5년 목회를 했으니 대충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35년 했기에 더욱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나는 밤잠을 못자고 연구하고 기도한다. 내 사전에 대충도, 차선도 없다. 오직 최선만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는 말씀은 내 삶과 목회의 모토다. 그랬기에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이 있고, 오늘의 내가 있다.

성공은 '번뇌와 번민과 노력'이라는 삼총사가 만드는 작품이다.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성공을 위한 조합이다. 번뇌할수록, 번민할수록, 노력할수록 성공은 친한 친구가 된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짐을 꾸린다. 성공도 그렇다. 세상의 쾌락도, 때론 친구도 버리고 가야 하는 나와의 외로운 싸움이다. 그러나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쾌감과 성취감을 알기에 인내하고 고군분투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키워라', '비록 지금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꿈을 꿔라', 이것들은 내가 자주 외치는, 성공을 불러오는 구호요 키워드다. 이것을 실천할 때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축복장인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성공도 조건부다. '노력하면'이라는 조건 하에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 그 손을 잡을 것인가, 현재의 안일과 쾌락과 손을 잡을 것인가. 지금 결단하라. 그 결단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자유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7월 29일부터 2박 3일에 걸쳐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장성 예수중심기도원에서 개최되었다.

이틀에 걸쳐 총회장 목사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아이들에게 확실한 이정표를 제시하셨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호4:6). 지식이란 아는 것이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고 하셨다. 곧 '자유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두려운 것이다. 나이트 장로님이 영어를 모르니까 해외여행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손자들은 영어와 중국어를 잘하니까 자유롭다면서 그들과 다니니까 편하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받았어도 운전할 줄 모르면 그건 짐만 된다. 알아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엘리아를 닮으려고 했듯이,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스티브 잡스를 롤모델로 삼고 모방했듯이 여러분도 선망의 대상이 있어야 그를 모방하고 그를 닮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 닮은꼴은 시간과 정비례하는 법이다.

셋째, 배울 것이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성경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환경의 노예다. 가장 중요한 환경이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이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가는 자들에게 왜 꼭 그 대학에 가려고 하냐고 물어보니 바로 능력 있는 친구, 인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들은 그것이 삶에 징검다리요, 날개가 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단점을 보완하려 애쓰지 말고 너의

과 같다. 인생은 선택과 집중에 승패가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섯째, 반복이 달인을 만든다. 무엇이든 반복해야 내 것이 되고, 그것에 전문가가 된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가? 반복해서 피아노를 쳐라. 요리사가 꿈인가? 반복해서 요리를 해라. 목사가 되고 싶은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라. '열 번 짝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반복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짝으면, 노력하면, 반드시 넘어오게 되어있으니 반복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라.

반복은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이 있거든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끊어버려라.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고 천국에 오라는 말씀처럼(마5:29~30), 나쁜 친구



제23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2019년 7월 29 ~ 31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열심히 배워라.

성공에 이르는 길도 알아야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성공하려면 먼저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이는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으로(출20:17), 네게 맞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소나무가 참나무가 될 수 없고, 포도나무가 사과나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적성에 맞는 일, 하면서 즐거운 일을 찾아야 능력이 발휘되고 성과도 있다. 둘째, 롤모델이 있어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 오늘까지 왔다. 엘리사가

장점을 키워라. 장점을 키우면 단점이 매몰된다. 단점을 보완하려고 애쓰는 것은 에너지 낭비요, 시간 낭비다. 축구를 잘하는 손흥민 선수나 춤과 노래를 잘 하는 방탄소년단을 보라.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 주지 않는가.

다섯째,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을 잡은 후에 속도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노력해야 한다. 목표가 없는 삶은 과녁 없이 활을 쏘는 것

가 있으면 잘라내라. 게으름이나 거짓말하는 습관도 잘라내라. 습관이란 놈은 너를 성공자로 만들 수도, 패배자로 만들 수도 있다. 성공의 장애물이 있거든 과감히 잘라내고 새로운 길을 가라. 그래야 새 역사에 이룰 수 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은 '결단하라'고 끝까지 외치셨다. 30년 후, 4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은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신묘수 전도사



성령세례



경배와 찬양



미션 서바이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7:7~11)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제게 “이 목사야, 네게 뭘 해주길 원하냐?” 하고 물으시면 저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다시피 이번 주부터 청소년 연합수련회도 있고, 어린이 여름 성경캠프도 있고, 산상집회도 있습니다. 낚시를 좋게 해주시고, 사건 사고 없게 해주시고, 악한 자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자동차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다 치거나 아픈 자가 없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보내주세요.”라고 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가끔 제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하면 “은혜를 달라고 할 겁니다.”, “성령충만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아예 답도 못하고 웃기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일견 바람직한 대답인 건 인정합니다. 은혜를 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성령충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게 뭘 주길 원하냐?’ 하고 물으시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제일 절실한 걸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왕상3:5)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당시 20세였습니다. 통치 철학을 알 나이가 안 되었지요. 그러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좋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빠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3:7~9). ‘이 나라의 평안이요’라고 두루뭉술하게 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와 영광도 함께 주사 열왕 중에 이와 같은 이가 없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조목조목 적어서 기도하라

소경 바디매오는 여리고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는 목청껏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바디매오는 1초

도 지체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막10:51)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매오가 부를 때 이미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신 예수님은 그와 대화해보지 않고도 ‘그는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다 아셨지 않습니까? 바디매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은 이미 그의 소원을 알고 있었지만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바디매오는 눈 뜨는 것이 소원인지라 그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여

러분, 엄마 아빠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는데, 체면 따질니까? 아프면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 하고요. 당장 살 집이 없으면 집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구해야 합니다. 괜히 폼 잡느라, 아니면 창피해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문이 불에 타서 엉망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일을 슬퍼하다 금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술관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지만 포로로 끌려 온 속국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울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안색을 살피더니 왜 근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해 아뢰기가 쉽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그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

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조국의 상황을 설명했고, 왕은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나를 유다 땅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느2:5)라고 말합니다. 가슴에 절실했던 말이 톱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에 왕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리러 갔습니까? 기도하고 갔으면 다른 소리 할 것 없습니다. 괜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 회를 놓쳐 입도 못 때고 오지 말고 바로 ‘돈 좀 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한밤중에 보리떡을 구하러 간 친구처럼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니 모세는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들이 없어 끝탕을 하던 한나가 무엇을 구했습니다? 오직 아들이었습니다. 입다가 구한 것은 전쟁의 승리였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딸의 병 낫기만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마6:7). 장황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마6:11)? 제가 손자들에게 ‘무엇을 먹

을래?’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거나요’ 하는 놈은 아예 안 줍니다. 지금 먹고 싶은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지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앓고 서는 것, 우리의 폐부까지 다 들여다보고 다 아시지만 물으시는 것은 소망의 열도를 재기 위해서입니다. 소망의 열도가 높으면 언제 물어도, 어느 상황에서 물어도 원하는 것이 톱 나오기 때문입니다. “음~” 하며 오래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급한 게 없다는 거거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당장 일자리가 있습니까? 앞뒤 사설 빼고 “하나님, 일자리 주십시오. 벌어야 가족이 삽니다.”라고 기도하세요. 병들었습니까? 바디매오처럼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마6:6).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미사여구 쓰지 말고 직고하세요. 배고프면 엄마에게 “밥!”, 이렇게 하듯 하나님께도 핵심을 가지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소나무를 자를 때 잘라질 때까지 톱질을 해야지 중간에 힘들다고 멈추면 송진이 나와 더 이상 톱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하다 포기하면 악한 것들이 달라붙어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기필코 응답 받고 말리란 정신으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서원과 꿈

나는 예수님과 예수중심교회와 이초석 목사님께 충성하겠다고 서원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누구나 그렇게 서원해야 목사 안수를 해주셨으니 자의 반, 타의 반 서원을 한 셈이다. 그것도 서원이니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한번은 꿈속에서 큰 소리로 “너는 어서 이 교단을 떠나라.”고 목사님이 모든 주의 종들 앞에서 명령하셨다. 의아해하고 있는데 3개월 후에 이번에는 단둘이 있을 때 내 귀에 대고 귓속말로 “너는 이 교단을 떠나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떠나고 있느냐? 조용히 떠나라.”는 꿈을 다시 꿔다. 갈등과 번뇌가 생겼다. 산으로 올라갔다. 밤샘 기도를 했다. “주님, 두 번씩이나 동일한 꿈을 꾸었는데, 저는 이 교단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서원한 것 때문입니다.”라고 애통했더니, 새벽 즈음에 “그러면 이곳에서 잘 버티 엘리사의 복을 받아라!” 하셨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번민 해본 적 없다.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버티며 달려왔다.

서울교회 담임 10년 차 즈음 되었을 때, 잘 부흥하던 서울 교회가 2년 정도 답보 상태가 계속되었다. 모든 것이 내 탓 같았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목사님께 죄송하여 목사님께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저는 어느 곳이든지 좋으니 지교회로 보내달라고 떼를 썼다. 목사님이 고민이 되셨는지 대답이 없으시다 기도원 집회 중 어느 날 새벽 2시 반, 잠든 나를 부르셨다. 가보니 희미한 불빛 아래 우두

커니 혼자 앉아 계시다가 “너도 개척하고 싶니?” 하셨다. 그때 나의 대답은 산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 대로였다. “나는 예수님과 예수중심교회와 목사님께 충성하겠다고 서원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떠나는 날은 목회 그만두는 날입니다. 목회를 평생 하겠다고는 서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럼 가서 자거라. 서울 교회 걱정 말고. 어려울 때는 그냥 버티는 거다.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하시며 청계산에서 주님이 하시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그날 이후 10여 년, 지금까지 주님 은혜로 잘 버티고 있다. 좋은 날들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주님께서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전5:4),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찌라도 변치 아니하며”(시15:4)라고 하셨다.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다.

혹, 나처럼 꿈의 계시가 서원과 다를 때는 깊이 기도하여 주님 뜻을 깨달아야 한다. 야곱도, 한나도, 입다도, 다윗도 서원을 잘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잊지 말고 주님과 약속한 것 잘 지켜나가는 습관을 들여 주님 앞에 떳떳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시대 목사

:: 성경에세이 ::

후일을 생각하며

여보게!

나는 요즘 나의 10년 후, 20년 후를 자주 생각한다네. 나이가 든 탓일까!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주의 일을 하고 있겠지? 성도들 중에는 천국으로 가신 분도 많겠지. 그럼 20년 후에는 어떨까? 우리 장로들도 그때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밤을 새운 적이 많다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고? ‘그래,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 바로 이거라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간일진대 누가 10년 후의 일을 알겠는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열심히 하면 10년 후든, 20년 후든 걱정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네. 이 땅에 살든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든 걱정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네.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10년 후에는 그 결실이 맺힐 거고, 20년 후에는 결실이 산을 이루지 않겠는가. 지금 저축하면 10년 후에는 여유로울 것이고, 20년 후에는 더욱 풍부해지겠지. 지금 신앙생활 잘하면 10년 후에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천국으로 이사했다면 그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니 걱정이 없다는 거지.

누구나 죽는다네. 세월 앞에 장사 없고, 가는 세월을 막을 자도 없지.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일 터, 우리가 할 일은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현재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며, 지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니까.

많은 제자들이 앞서 천국으로 갔네. 제자를 앞세운 내 마음인들 편하겠나. 남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보자면 가슴이 찢어진다네. 그러나 내가 이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했기에 부르심을 입었을 때 걱정을 안 했다는 거지. 스승으로서 그제 감사할 뿐이라네.

익은 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네. 땡감도 떨어진다네. 그러니 오늘을 마지막 날인 듯 열심히 살게. 대충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10년 후의 일을 걱정 말고, 20년 후의 내가 어떨지 걱정 말고 지금을 열심히 살게. 그러면 당연히 10년 후, 20년 후에는 아름답고 멋진 것일세. 그때 이 땅에 있든 천국에 있든 말일세.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6:34).

朋友

가치 있는 삶

중 ·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었다. 우연한 계기로 중고등부 예배를 나가게 되었고 수련회를 통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중고등부에 정착하게 되면서 임원도 하고 부서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게 되었다. 이때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뭐든지 열심히 했었다. 그러나 졸업 후에는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고자 중고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다.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도 성숙해지면서 나의 가치관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무엇보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

다가 총회장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삶의 모토로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물론 결심한 이후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비전을 심어주셔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삶이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은성 성도
es2563@naver.com



:: 생명의 말씀 ::

피리를 불면 춤을 추자

어떤 중학생이 백혈병에 걸렸다. 머리를 뺄뻍 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 아이는 그날부터 말을 잃어버렸고, 웃음도 잃어버렸다. 그리고 아이는 그날부터 식사를 하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엄마는 아들에게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그러니 밥을 먹자!” 하며 위로하지만 아이는 병실 천장만 바라볼 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다.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면서 아들이 입원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빠를 본 아들이 흠칫 놀란다. 아빠가 자신처럼 뺄뻍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아이는 물을 마셨다. 그 다음날 대학교에 다니는 형이 병실 문을 들어서는데 형도 자신처럼 뺄뻍머리다. 아이는 형을 보며 움찔한다. 아이는 그날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었다. 그 다음날 고등학교에 다니는 형이 병실 문을 들어서는데 둘째 형도 뺄뻍머리다. 아이는 또 놀란다. 그날 아이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 다음날이다. 엄마가 병실 문을 들어서는데, 엄마도 뺄뻍머리다. 아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를 꼭 껴

안고 사랑을 고백한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큰 형도 사랑하고, 둘째 형도 사랑해! 모두모두 감사해요” 이런 것을 ‘공감’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소망’이라고 한다. 이 시대는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다. 각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각자가 좋아하는 행동만 고집하며 산다. 그래서 사랑이 깨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나라가 시끄럽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눅7:32).

세상이 각박해지고 악해지고 힘들어질수록 옆에서 피리를 불면 함께 웃으며 춤을 추자! 옆에서 슬피 울면, 가슴을 치며 함께 울자! 옆에서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어 갖자!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공감하는 삶을 살 아내자!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실화입니다. 여행 중에 그가 한 주막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주막에는 병환 중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톨스토이가 가지고 온 빨간 여행가방을 가지고 싶다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눈물로 졸랐습니다. 난처했던 톨스토이는 안에 집이 가득 들어있으니 집에 돌아가면 집을 다 비우고 다시 가져다주겠노라 약속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 소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주막에 돌아갔을 때 소녀는 이미 죽어 공동묘지에 묻힌 뒤였다고 합니다. 극한 후회에 빠진 그는 소녀의 무덤을 찾아가 가져온 가방을 무덤 앞에 놓고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석에는 ‘사랑을 미루지 말라!’고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성경 전도서에는 때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전3:1)는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깨닫고 행해야 할 일들

을 늘 마주하며 삽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금의 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길에 사자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잠 26:13)며 감당하기 힘든 101가지 이유를 찾아내지요. 그러나 ‘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고,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않으면, 결국 심은 그대로 후회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슬퍼하시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특별히 깨어 기도하길 요청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 ‘때’에 그들은 잠들었고, 결국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고, 그분을 세 번 부인했으며, 닭 우는 소리에 심히 통곡하는 후회의 결과를 얻게 되었지요. 에스더가 그 ‘때’에 금식을 선포하고 용

기내지 않았으면, 삭개오가 그 ‘때’에 나무에 올라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중풍 병자의 친구들이 그 ‘때’에 지붕을 뚫고라도 친구를 예수께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 망설여지는 분들이 있다면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영·혼·육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망설여지시는 분,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단연컨대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이뤄낼 힘을 간구하여, 기꺼이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할렐루야!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Good News

벤저민 위어라는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1980년도에 레바논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중에 무슬림 과격분자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온몸이 결박당하고 눈은 가려진 채 어디론가 끌려갈 때 극한의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후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구조되고 그를 납치했던 테러범들이 체포되었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던 선교사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간단명료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상화평 목사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다 미쳤다 그래도 네 엄마를 인정해준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네 엄마는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미친 여자 됐을 거야.” 총회장 목사님께서 저를 보면 종종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온갖 핍박을 받던 시절,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믿음을 너에게 주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 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전 재산을 내어 놓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재산은 전셋집 보증금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아버지의 명의로 계약되어 있었으니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원에 쌀을 보내라는 감동 따라 장성 농협에 전세보증금 상당의 쌀을 예약했습니다. 하계산상집회 2주 차 첫날 찾으러 가기로 하고, 대금도 그날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파트 전세계약서 원본을 성경책 속에 넣고, 전세계약서를 담보 삼아 돈 구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쌀을 찾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갔으나 거절당하고,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호와 이레, 준 비됐으니 가라!” 하고 천둥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곧장 장성 농협으로 향했습니다. 장성 농협에 도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쌀값은 오지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지갑 속에 있는 돈 6만 원을 장성 농협 담당직원에게 건네면서, “나머지는 기도원에 도착해서 드릴 테니 갑시다!”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 담당 직원도 그 말을 의심치 않았고, 쌀을 가득 실은 트럭은 장성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하자 바로 쌀을 내리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총회장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무릎을 탁 치시면서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너는 너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솥양을 미리 준비해서 받으셨어. 나는 너 같은 믿음을 있는 자를 찾고 기다렸어!” 하시면서, 한 장로님에게 “쌀값 지불해라. 내가 서울 가서 주마.”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하계산상집회 첫 주에 이 무리들을 먹이려면 쌀 얼마가 필요하니 감동 오는 사람은 가지고 오라고 광고한 후,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골방에서 기도하던 어머니에게 하계산상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

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참 종, 총회장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주셨겠냐’며 하나님과 총회장 목사님께 항상 눈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어머니를 총회장 목사님께 인도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때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미쳤다고 취급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종을 명하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십시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히 11:17~19)처럼 여호와 이레(창22:14)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창22:7~8).

정명관 성도
vic-777@daum.net

콩 심은 데 콩 나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들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과 구원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세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영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자연의 법칙,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의 법칙들도 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큰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웬만해선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들을 깨지 않으신다. 그러한 법칙들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들이기 때문이다. 지구에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중력의 법칙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없다면 홍해는 매일 갈라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사방이 막힌 상황이 아니라면 대책이나 노력 없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시험은 기도만 한다고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온다.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한다. 어떠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면 기도만 하고 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구하고만 있지 말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기도를 해야 하는 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에 원망만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말이다. 기도 제목이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가, 아니면 마음의 소원만이 있는가? 콩을 얻고자 하면 콩을 심어야 한다. 바로 지금 나로부터.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잠 19:3).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하계산상집회

8월 5일(월)~8일(목),
8월 12일(월)~15일(목)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 533. 9191